

히스레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는 날강도 미제를 박멸해버릴 천백배 보복의지의 폭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발표후 470여만명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 인민군대입대, 복대 탄원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완전피멸》 시키겠다고 함부로 췌쳐대며 최후발악하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수령보위, 사회주의수호전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이 발표된 후 6일동안에 달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은 나라에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참군열풍은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보려고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한 미친개무리를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불로 다스리 고야말 강용한 우리 인민의 천백배 보복의지의 폭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면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한 만리마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천만대오의 가슴가슴을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활활 불태워주고있다.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반미최후성전의 앞장에서 총결기해나섰다. 전국각지의 청년학생들은 모

임을 열고 《위대한 령장께서 원수격멸의 퇴성을 올리셨다》, 《500만개의 핵폭탄을 터뜨려 악의 제국 미국을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자!》, 《부나비처럼 헤엄치는 미국미치광이들을 모조리 박멸하자!》 라는 글들을 인민군대입대, 복대탄원서마다에 써넣으며 조국보위에 앞을 다투어 떨쳐나섰다.

조국방 방방곡곡의 일터와 교정마다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 청년학생들은 179만여명에 달한다.

력사적인 성명발표후 3일동안에만도 평안북도에서 12만여명, 황해남도에서 9만 7,000여명의 근로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것을 비롯하여 미국양키들의 무모한 침략전쟁광기를 단호히 짓밟아버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

업소 등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청년들의 탄원열풍은 날을 따라 고조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리수복순천화학공업대학, 황남공업대학 등 전국의 대학들에서도 수많은 학생청년들이 당과 수령에게 다진 맹세를 지켜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사수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지니었던 결사의 조국수호정신을 안고 혁명의 군복을 입을것을 결의해나섰다.

반미총결사전에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각지에서 열린 청년학생들의 탄원모임들에서는 철천지원수 미제와 기어이 결판을 내고야말 열혈의 복수자들이 터치는 멸적의 함성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청년탄원자들의 가슴마다 백두밀림에서 포악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항일혁명선열들과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7. 27전승신화를 창조한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

어 미국의 수치스러운 종말의 마지막페이지를 보기 좋게 써 줄 전투적기상으로 뛰어넘고있다.

각계층 근로자들도 력사적인 성명에 접하자마자 2,500만 우리 인민의 절멸을 췌친 극악무도한 양키무리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격분으로 치를 떨며 마치와 낫을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바꾸어 들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열의드높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전국의 로동계급은 우리당이 대사변개시명령만 내리면 즉시적인 징벌타격전의 선두에서 철의 대군단이 되어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물론 태평양 건너 미국본토의 씨종자들까지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백악관의 정신병자가 유엔무대에 플레뚜기처럼 뛰어들어 떠벌인 그 무슨 《완전 파괴》 망발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사회주의협동벌의 농업

근로자들은 용약 결전장으로 달려나가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무리들을 서슬푸른 총창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을 결의해나섰다.

우리의 녀성들도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가 정들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치광이무리들에게 참혹한 죽음과 파멸을 안길 복수의 일념으로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섰으며 그 수는 날로 늘어나 122만여명에 이르렀다.

투철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지니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삶의 보금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반미결사항전에 총결기해나선 은 나라 전체 인민들은 이 행성에 온갖 불행은 몰아오는 악의 총본산인 미국을 지구상에서 초토화해버리고 최후승리의 불은기를 높이 휘날려갈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매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사설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자

오는 10월 4일은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이 또다시 열리고 여기에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10.4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통일되고 번영하는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과 로고에 의해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주체96(2007)년 10월 평양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또다시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고매한 덕망으로 평양에 찾아온 남측대통령일행을 따듯이 맞아주시고 오랜 시간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실천적문제들에 명

쾌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 발표되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우리 겨레가 새 세기에 높이 들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이다.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은 겨레가 지지찬동하고 세계가 환영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그대로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는 훨씬 멀리 전진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친미보수 《정권》들이 련이어 등장함으로써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일시에 얼어붙고 최대로 악화되게 되었다.

남조선의 반통일보수 《정권》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6.15의 귀중한 성과들을 모조리 뒤집어엎었으며 조선반도를 전쟁접경의 위험천만한 지대로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초불혁명》에 의해 태어났다는 현 《정부》는 동족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핵무력강화조치들을 걸고들면서 미국과 야합하여 대조선제재와 군사적압살소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다. 내외반통일전쟁세력의 책동으로 평화가 엄중히 위협을 받고 통일위업수행에도 난관이 조성되어있지만 우리 겨레는 비판하지 않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겨레에게는 절세위인 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년전 력사의 땅 관문점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굳은 결심과 의지를 천명하시였으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두해전 8월 군사분계선의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원인 모를 《지리사건》을 둘러싸고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에도 정세의 난황을 헤칠 단호한 결심과 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급접촉을 열도록 하시으로써 민족의 머리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탁월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여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자위의 핵보검으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고계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은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끝까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며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다. 6.15시대의 환희로운 나날들과 그후 북남관계를 파피에 로 몰아간 지난 10년간의 나날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고수리행에 조선반도의 평화

와 민족의 번영, 통일이 있음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통일의 종착점을 향해 매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의 위협천만한 대조선 압살과 핵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며 정의의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지금 세계가 지켜보는 첨예한 조미핵대결은 단지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대결만이 아니라 우리 겨레에게 세기를 이어 온갖 불행과 재난을 강요해오고있는 미국 대 조선민족의 대결이다. 포악무도한 제국주의 깡패국가인 미국은 지금 이시각에도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를 부르짖으며 삼천리를 열핵참화지대로 만들고 우리 겨레모두를 멸살시키려고 분별을 잃고 날뛰면서 야수의 본색을 날날이 드러내고있다. 미국의 횡포한 침략광기를 짓누르지 못한다면 이 땅의 평화도 없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도 있을수 없다. 평화는 오직 조선민족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공화국의 완성단계에 이른 자위적핵무력은 미국의 침략위

협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전체 조선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정의와 평화의 위력한 보검이며 억만공파도 바꿀수 없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온 겨레는 동족의 자위의 핵을 걸고드는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무분별한 대결전쟁소동으로 이 땅에 핵전쟁을 몰아오는 호전세력들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용납치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재앙을 스스로 초래할 어리석은 친미굴종적자세를 버리고 전쟁을 마구 부르짖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정의와 애국애족의 편에 서야 한다. 전민족의 단합실현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반전평화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통일의 그날까지는 아직 멀고 험한 가시밭길이 놓여있지만 자주통일은 대세이고 그 승리는 필연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오야할것이다.

승리의 문어구에 서있는 북

지금 우리 해외동포들은 병진의 기치높이 자위적핵무력을 가일층 강화하면서 조선민족을 열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전쟁광기를 통쾌히 제압해나가는 북의 우람찬 기개에서 민족의 밝은 래일을 내다보고있다.

최근 북이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것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력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대사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절대병기, 《황제 폭탄》과 함께 그 운반수단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강국의 기개를 더 높이 떨칠수 있게 되었다.

북의 자위적핵무력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정의의 보검이며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나라와 민족이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엄청난 재난을 당하기마련이다. 지금도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힘이 세면 불의도 《정의》로 둔갑되고있는것이 행성의 어지러운 현실이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그 자체가 전쟁을 막는 최강의 억제력이라는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사에는 무려 1만 4 500여차례의 전쟁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졌지만 그 나라들사이에서는 단 한차례의 전쟁도 없었다.

북이 맞서고있는 주되는 적수인 미국은 핵무기에 의한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기초하여 힘이 약한 상대만을 플라

가며 미싸일을 퍼붓고 침공의 군화발을 내딛는 가장 횡포무도한 강대국가이다. 유고슬라비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가 바로 힘이 약한 탓에 미국에 것처럼 처참히 당하였다.

약자의 수난과 말없는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지난 4월 미국은 대국으로 자처하는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자기 땅에 초청해놓고는 보란듯이 수리아에 미싸일을 퍼부었다. 한두발도 아닌 무려 59발의 미싸일을 마치 불꽃 날리듯 남의 나라 지경에 날려보낸 사실에 세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사람들을 더욱 아연케 한것은 미국이 미싸일공격개시 몇시간전에 로씨야에는 사전통보를 하여 수리아공군기지에 있던 자기 군인들과 무장장비들을 전부 철수시키게 한것이다.

이것으로 알수 있는 두가지 명백한것이 있다.

하나 미국이 핵을 가진 로씨야와는 군사적충돌로 치닫는것을 기피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멈춰세우지 못했다는것이다.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에 앞장서야 할 유엔도 미국의 한갓 거수기역할을 하고있는것이 오늘의 부당한 세계정치현실이다.

북은 국제조약과 국제기구도, 다자간의 합의도 미국의 독단과 전횡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전략된 비극적인

현실에서 자기를 지킬 힘은 오직 자기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부득불 미국의 가증되는 핵공갈과 위협에 맞서 핵보유를 선택하는 전략적결단을 하였던것이다.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시기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언하면서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하며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라고 떠들어낸 미국이다. 그리고 지난 60여년간 이남에 수많은 핵무기들을 전개하고 각종 대규모북침합동전쟁연습들을 벌여놓으며 북을 핵으로 끌어들여 위협해온 미국이다.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귀중히 여기는 북은 지금까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하여왔다. 그래서 북미사이에는 지난 시기 일련의 합의들도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그 합의들을 깨고 북을 계속 핵공갈하고 침략위협해온것은 미국이었다.

세상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사건이 그 단적인 레이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북과 부당하게 련계시켜온 미국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 20일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북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북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했지만 북은 《악의

축》으로 몰아대면서 핵선제공격명단에 올려놓았으며 불의의 핵선제공격을 위한 북침핵전쟁 각본들을 부단히 수정, 보충, 완성해왔다. 전 미국방장관 파네타는 2011년 10월 이남의 국방부 장관에게 조선반도유사시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립장을 전달했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2015년 가을 미국의 네바다주 사막에서는 소형정밀유도 핵무기 《B61-12》 시험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그것이 북을 겨냥한것이라는 사실을 까밝혔다. 군사전문가들을 이 핵무기가 보복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쓰일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몇달후 북은 첫 수소탄시험의 퇴성을 올렸다. 보는것처럼 미국의 핵위협이 중대될수록 북은 핵능력을 질, 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하는것으로 맞섰다.

얼마전 유엔총회의 마당에서 까지 북을 《완전파괴》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망언이 다시금 시사해주는것처럼 유엔현장도 마구 짓밟고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에 침략의 불세례를 들켜우는 미국에게서는 그 어떤 자비도 바랄수 없다. 최대의 억제력인 핵을 쥔 나라도 절멸시키겠다고 광기를 부리는 미국일진대 상대가 핵이 없다면 미국은 좋아라 불소나기를 마음껏 퍼부어낼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것도 이 나라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것을 유엔사찰과 정보활동을 통

해 《100% 확신》한데로부터 단행한것이라는 미국내의 증언이 또다시 울려나온것도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라크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힘이 약한 탓에 미국의 먹이감이 되었지만 북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미국과 당당히 맞설수 있는 위력한 핵무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뿐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공격까지 가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초강력 열핵무기로 알려져있다.

북이 첫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하였을 때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전하였다. 《만약 북조선이 저런 수소탄을 적대국의 대도시상공에 터뜨리면 핵폭풍만이 아니라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여 모든 전자제품과 전기설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사람이 살수 없는 지옥같은 곳으로 만들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전 사무차장도 얼마전 북이 보유한 《EMP탄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폭발하기때문에 요격이 어렵고 매우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단지 몇기만 보유해도 엄청난 억제력을 갖게 된다.》고 실토했다.

트럼프가 이런 북을 감히 다칠수 있겠는가. 서빨리 덤벼들었다가는 미국본토가 재앙의 천지로 변할터인데...

그런데도 트럼프는 자기

의 유엔총회연설에 분노하여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를 예고한 북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오래가지 못할것》이라고 악설을 또 늘어놓았으니 정말 미쳤는지, 미치광이처럼 노는지 소가 웃다 꾸미 터질 노릇이 아닐수 없다.

오래가지 못할것은 정의와 힘을 모두 갖춘 북이 아니라 침략과 살륙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력사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자멸의 불속에 서슴없이 뛰어들려고 날치는 미국이다.

미국에서 전쟁을 직접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합참의장 단포드는 며칠전 상원군사위원회 회의의 재인준청문회에 출석하여 《북조선은 미국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능력도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고 심중하게 말하였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완성의지를 꺾을수 없고 싸워서 이길수도 없다.

지금 승리의 문어구에서 가슴 내밀고 서있는것은 북이다.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이 상징하듯 한때 그 위세를 뽐내던 고대로 마제국이였지만 종당에는 망하고말았다.

지금 미국의 운명이 망하기전의 고대로마제국을 련상케 한다.

미국은 북과의 승산없는 싸움에서 이제는 물러서는것이 상책이다.

이 세상 제일 강하고 위대하신분을 령수로 모시고있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의 단결을 이룬 인민이 있으며 애국의 병진로선에 따른 무진막강한 국가핵무력이 있어 북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것이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최수민



10. 4선언 발표 10뚝에 즈음한 북, 남, 해외 공동호소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의 청사진을 담은 10.4선언이 발표된지 10뚝이 되었다.

10.4선언은 역사적인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법적, 제도적장벽을 해소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의 신뢰를 조성하고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천명한 겨레의 소중한 전취물이다.

10.4선언이 제대로 리행되었다면 우리 겨레가 북과 남을 오가며 이룩한 민족단합의 성과들이 평화변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기 되었을것이며 우리 겨레는 이미 조국통일의 문어구에 들어섰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0.4선언은 제대로 리행되지 않았으며 해외의 우리 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쌓아올린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소중한 성과들은 처참하게 짓밟히고말았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부추겨 저들의 패권을 실현하려는 외세의 음직임과 북남공동선언을 외면한 적폐《정권》의 민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의 전면단절은 물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도 날

로 고조되었다. 대규모의 초불항쟁으로 남쪽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만 이전 《정부》들이 추구해온 민족분열, 대결정책을 버리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길은 여전히 막막혀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10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단절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위기가 극한점에 달한 지금 6.15공동선언실천 북, 남, 해외측위원회는 고조된 핵전쟁위험을 막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북남사이의 호상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대결시대의 낡은 정책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정책에 동조하면서 대화와 협력, 신뢰회복은 있을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분

렬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장벽을 없애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다.

최근 북의 전역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운운하며 군사력사용을 공공연히 떠벌이는 미국집권자 트럼프의 망동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심각한 모욕이고 훼손이다.

겨레의 운명과 리익을 외세에 내맡겨서는 결코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나갈수 없다.

수십년간 이 땅에 포아리를 들고앉아 온 겨레를 고통에 빠뜨린 전정체제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민족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우리 민주구성원모두가 자기 운명의 주인, 주권과 평화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안녕을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함께 나서자!

-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7년 9월 27일

자멸을 부르는 트럼프의 전쟁피리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유엔무대에서 트럼프는 북의 《완전파괴》를 떠벌여왔다.

늑다리미치광이의 정신병적인 광태와 폭언을 북은 《선전포고》로 락인 하였으며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전역이 악몽에 시달리고있다.

미국의 주들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핵전쟁으로 인한 《초대형참사》를 《예방》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하였으며 하와이주, 알라스카주는 이미 비상대응책을 실시하고있는 판이다.

미국의 많은 주민들이 핵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으니 이 모든것은 매련등이 트럼프의 잘못 놀린 입 때문일것이다.

주권국가를 《완전 파괴》하겠다는 경악을 자아내는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이 북의 무자비하고도 섬멸적인 초강경대응조치단행선포로 거꾸로 미국인들에게 불안과 핵전쟁공포증을 들춰우고있는것이다.

미국의 군사안보전문가 집단인 《플로에어스 펀드》는 현 미국미싸일방어체계로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요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면서 조선이 《협력해주는 조건》에서 요격이 가능하며 《리상적인 조건》에서의 요격확률도 50%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미최후결전의지로 불리우는 북과의 《협력》이나 《리상적인 조건》이란 사실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종화, 다기능화되고 수스타까지 장착한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미국인들 어떻게 막아낼수 있겠는가.

남북전쟁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타국의 본토공격을 받아보지 못한 미국 땅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공격을 겪어본것은 9.11 사건뿐이다.

한갓 민간항공기공격으로도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가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미국방성청사도 공격받았다. 또 다른 공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당시 뉴욕과 워싱턴은 물론이고 미국전역이 삼시에 수라장이 되었었다.

이것이 일명 《악몽의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9.11사건이다.

만약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로케트가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면 그 참상은 그때와는 대비가 안될것이다.

9.11사건후 미국내에서는 방위상 약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연방터져나왔다.

가장 큰 우려는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핵시설들이 공격당하는 경우였다.

현재 미국전역에는 100여개의 원자력발전소가 널려져있다.

한개의 원자력발전소안에는 핵무기가 폭발할 때보다 1 000배나 넘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있어 원

자력발전소 하나가 외부로 공격받는다면 1 000개의 핵무기가 폭발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100여개의 원자력발전소는 미국인들에게는 《핵시한탄》으로도 되는것이다.

원자력발전소만이 아닙니다.

9.11사건이후 미국회는 전국적으로 가장 위험한 화학공장 120여개중 극히 일부만 폭발하여도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정교한 핵무기의 공격이 아니라도 원시적인 핵폭탄으로도 막심한 피해를 입을것이라고 아우성쳤다.

암둔한 늑다리 트럼프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있거나 아직도 저들의 땅을 누구도 다칠수 없는 《성곽》으로 착각하고있는 모양이다.

전쟁은 자비가 없다. 미국이 북을 《완전파괴》시키겠다는 전쟁불명치를 들고 덤벼든다면 그 순간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파괴되는 날이 될것이다.

부동산투기나 해먹던 늑다리가 사기와 협잡으로 대통령이 되고나니 어별특지가 되게 커졌다.

세계평화를 론하는 유엔무대마저 전쟁과 살육을 설교하는 무대로 어지럽힌 트럼프는 자기의 전쟁광기가 미국의 파멸을 부르는 전주폭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재카나다동포 김준식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름날리고있는 《트럼프 필하모니》의 《아메리카광상곡》에 대해 알고있습니까.

미국의 오늘을 형상한 《아메리카광상곡》은 《아메리카제국》에 자위의 핵으로 대응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대한 위협》, 《악마》로 몰아 제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만방에 떨치기로 하는 《피짜》(사실은 트럼프자신이라고 합니다.)를 《현대의 영웅》으로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모두 4악장으로 구성되어있는 《아메리카광상곡》은 트럼프 자신이 직접 작곡한것이라고 합니다.

지휘도 물론 트럼프가 하는데 악단의 구성원들은 세계 5대륙에서 모인 《이름난 악사》들이라고 합니다.

1악장은 총제목과 같은 《아메리카광상곡》으로서 트롬본을 위한 환상곡입니다.

여기서는 《조선》과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 《조선》이 《잘못》을 스스로 누워치게 하여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현대의 영웅》이 되어보려는 《피짜》의 천진란만한 공상과 칼날같은 야심을 웅장한 소리를 내는 트롬본의 고음구음색을 기본으로 펼쳐보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트롬본연주는 악기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트럼프입니다.

2악장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는 《조선》을 《봉괴》시키기 위해 1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미국의 《전통》인 《전략적

인내》의 실패와 종결을 인정하고 《최고》의 수식사가 붙은 《제재》와 《압박》으로 《조선》을 억제하고 《자멸》하도록 하려는 《피짜》의 《림기승변》을 펼쳐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정권교체》는 하지 않고 《제재》와 《압박》으로 억제한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피짜》의 《4대기조》가 그대로

만필

《트럼프망상곡》

담겨져있다던지.

3악장의 제목은 《제재, 오직 제재뿐》이라고 합니다.

《조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인민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친 광범한 제재를 집중적으로 들이댄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통절한 제재》를 위해 모두가 《단결》하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북》과 똑같은 《악마》로 보고 《매성》(마돌림)의 대가를 토틈히 볼것이라는 《피짜》의 강자와 억지를 어둡고 거칠며 입김이 많이 드는 트롬본의 저음구음질과 《피짜》의 강요에 대하여 《총의》가 넘친 서울산 피리의 침울한 음색과 도묘산 사미센의 간특한 줄팅김소리가 복합된 3중주의 조화로움으로 보여줍니다.

호궁소리나 바얀 소리가 장단을 맞추기도 합니다.

4악장은 《완전파괴》입니다.

아무리 얼려보고 으름장을 놓아보고 온갖 《제재》를 가해도 통하지 않게 되자 《피짜》가 드디어 핵전력자산이라는 《병정기》를 휘두르며 《조선》을 《절멸》시키겠다고 으르렁대는 광란적모습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생동감을 돋구느라 어둡침침한 조명속에 기괴하고 자극적인 선물을 기본으로

4악장은 《완전파괴》입니다.

《완전파괴》라는 4악장에서는 불협화음으로 이어지던 그럴바엔 트럼프나 혼자 연주해라 하며 악사들이

등을 돌려댄것입니다. 시작부터 얼굴을 찡그리고 귀를 막고있던 관람자들의 항의의 목소리도 대단합니다.

《로망한 광란자》, 《늑다리 미치광이》, 《트럼프 자중하라! 적당히 가불어라》, 《강패두목》, 《신 히틀러》, 《몽유병환자》...

트럼프가 그토록 고심하여 창작했지만 《아메리카광상곡》은 결국 《트럼프망상곡》으로 되고말았던것입니다.

김정혁





나라들사이의 경제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추동한 전람회

— 제 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 —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었다. 조선국제전람사의 주최로 해마다 봄과 가을철에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는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되고있다. 이번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는 조선반도의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된 가운데 열리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역력강화조치를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전례없는 대조선제재와 군사적압박동에 매달리고있다. 더우기 공화국에 대한 트럼프의 《완전과피》망발은 존엄 높은 주권국가에 대한 용

납 못할 도전으로서 가득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더욱더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이러한 시기에 열린것으로 하여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람회에는 조선과 수리아, 중국, 쿠바,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대북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이 출품한 각종 전기 및 전자제품, 튜닝기재,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들이 전시되어 참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번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는 기업체들 사이의 경제기술적교류와 무역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설명회와 면담, 제

품소개 등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아시아의 한 기업관계자는 이번 전람회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혹독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조선의 경제가 날로 활성화되고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다른 나라의 기업관계자들도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조선은 투자조건과 전망이 매우 좋은 매력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 계속 참가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번 전람회를 주최한 조선국제전람사의 한 일

군은 《이번 전람회기간 다른 나라 기업들과 우리 나라의 많은 회사들 사이에 다방면적인 투자방안이 논의되었다. 이것은 적대세력들의 날로 약화되는 반공화국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끄떡없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전진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막강한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들사이의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전람회는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우수한 악기제작기술을 보여준 전시회

성을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최근 악기제작자들과 음악애호가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제9차 평양악기전시회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문악기생산 단위들과 예술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 개별적인 제작자들이 참여한 90여종에 1900여점의 악기들과 부분품, 소모품, 악기제작을 위한 공구들이 출품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의 이목을 끈것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갖가지 민족악기들이었다. 《아리랑》상표표 단 평양민족악기공장의 옥류금, 장새납, 중음저대, 고음저대, 단소, 대피리와 같은 현악기와 목관악기들은 다른 나라 악기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음색과 모양새를 가진 우리 민족악기의 우수성을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국립악기연구소에서 출품한 원치차식줄조이개와 현악기용활송지는 어

에서 음정변화를 없애고 조를하기 쉬우며 연주시간을 늘이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악기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가야금무릎받치개는 가야금의 미끄러짐을 극복하고 무릎접촉에 의한 울림통의 소리잡음을 없애므로써 연주시 가야금의 고유한 음색을 그대로 살리면서 음량을 높이고 연주가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만수대에울림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었다. 전시회에는 우아한 형태와 풍부한 음량, 화려한 음색을 가진 피아노들과 각이한 음역과 건반수를 가지고있는 손풍금과 바얀 등 양악기들도 많이 출품되었다. 공화국의 이름난 피아노생산기지인 평양피아노합영회사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건반의 감수성이 훨씬 개선되고 풍부한 음량과 화려한 음색, 색상이 다채로운 피아노들과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된 의자, 어린이예달을

출품하였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현악기용철감들과 바이올린선, 악기부속품들은 수입 자재대신 국내산 원료로 만들수 있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처녀시절 중앙예술단에서 활동한적이 있는 평양시 중구역에서 사는 라경숙녀성은 개천영예군인악기공장에서 만든 플루트를 연주해보고나서 《외국에서 만든 악기보다 음색이 맑고 누르개장치가 유연한것이 참으로 좋다. 우리 나라 악기제작술이 훌륭하다.》며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교향악단의 한 연주자는 악기들의 질이 높아 섬세하고 다양한 연주수법과 아름답고 풍부한 표현력을 담보할수 있다고 하였다. 제9차 평양악기전시회는 높은 수준에 오른 악기제작기술을 보여주고 공화국의 문명강국건설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



사화 병풍에 담긴 조소 (6)

글 신창섭, 그림 박봉혁

《아뿔싸, 내가 실수했나보군.》
한명회가 것처럼 거만한 자세를 거두고 조금이나마 시슴을 존대하려고 하는데는 다 까닭이 있었다. 불미스러운 골육상쟁의 피비린내를 풍기며 어린 조카를 옥좌에서 쫓아내어 널일땅에 귀양가서 죽게 한 세조가 자기의 무지한 악행의 흔적을 부처님을 통해 없애버리려고 불교에 전념하였기때문에 그도 부처를 믿는 몸이 되었던것이다. 《그래, 스님이 글을 잘 한다는게 사실이시요?》 시슴의 걸모양새가 비록 초라하기 그지없는 떠돌이중의 행색일망정 속내는 어쩐지 자기를 싼 듯 드러내기 싫어하는 알이 들었기에 한명회는 어지간히 호감을 가지고 또

물었다. 《잘은 못해도 호기심을 물리치지 저어되나이다.》 《그렇소? 그럼 어디 한번 글귀를 골라보시우.》 한명회는 시슴을 안방으로 들게 하고 주련이 늘 어세운 열두폭병풍을 구경시키었다. 시슴은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듯 연신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실로 명화로서이다.》 《위천강남시터》라는 제목을 보고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옛날 주나라때의 강태공임을 시슴은 어렵지 않게 알아보았다. 병풍속에 살아있는듯싶은 인물은 시슴의 머리속에 금시에 시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런 내색

은 전혀 내지 않고 한명회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시요이까?》 시슴의 이 물음에 한명회는 힐끗 그를 흘겨보며 별로 기대할것이 없다는듯이 건성으로 대답하였다. 《스님이 제아무리 글에 능하다 한들 생판 알지도 못하는 명인의 그림 폭에 어찌 붓을 댈수 있겠소?》 《그래두 자상히 들으면 혹시 글귀가...》 하고 말끝도 채 맺지 못했는데 한명회는 습벽 그대로 시슴의 뒤말을 이어 《글귀가 열릴수 있다 그 말이겠군.》 하며 마갑지 않은 기색을 지어보이였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체뗏에 겨워 다시금 입을 열었다. 《그럼 백이숙제는 아닌가?》

이번에는 분명히 시슴을 알잡아보고 하는 물음이었다. 그러나 시슴은 한자세로 내색을 앓고 점잖게 대답하였다.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꺾다가 굼어죽었다는 그 백이숙제 말이오이까?》 시슴의 요약한 대답에



한명회는 일순 면구스러워졌다. 생색을 내느라고 한 물음이었는데 그의 대답을 듣고는 시슴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허, 훤네 훤아. 아

주 잘 아시는구먼. 그런데두 그렇게 모르쇠를 하시오?》 한명회는 얼굴에 어줍은 웃음을 실으며 병풍속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법 해대었다. 《이 강태공이란 사람이 그때 큰 재상이었다구 어느 책엔가 씌여있더군요.》 《독서백편의자원이라더니 과시 대감님께서는 옛글도 많이 읽으신가싶으오이다.》 하고 시슴이 자기를 슬쩍 추어주자 천연스럽게 짝이 없는 한명회는 그 소리가 싫지는 않았던지 열굴에 화색을 띠고 허리를 쭉 펴며 되지 않게 점잔을 빼려 하였다. 《그런데 이런 귀한 병풍을 어디서 구하셨소이까?》 시슴은 진지한 어조로 이렇게 넌지시 물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사한것인데...》 한명회는 이내 뒤말잇기를 주저하였다. 눈앞에 번쩍이는 장봉이 얼른거렸기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의 몸값이 이렇다는듯이 장봉과 병풍을 바꾸었다는 뒤말은 달지 않았다. 《정말 뜻이 깊은 물건이오이다.》 시슴은 실로 감복이 된다는듯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값을 치르자고보니 어느새 문밖을 나섰더군요.

《동의보감》 열람프로그램 개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연구집단이 《동의보감》 열람프로그램 《유산1.0》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영구보존하면서도 과학연구사업과 임상활동에 리용할수 있다. 《동의보감》 열람프로그램 《유산1.0》에는 근 100만자에 달하는 원문한자들과 5편의 번역문들이 모두 전자문서로 입력되어있으며 3000여개의 고려의학용어, 1000여종의 고려약자료, 1만자의 한자사전으로 자료가치가 구축되어있다. 또한 《동의보감》의 영구보존을 위해 수천페이지 지나 되는 원전이 화상화일로 보관되어있고 이에 기초하여 3만 5000여개의 원문단락과 번역문사이의 1:1대응관계를 실현함으로써 학술체에 따르는 분류, 검색 및 통계분석 등을 원만히 할수 있게 하였다. 《동의보감》 열람프로그램 《유산1.0》이 개발됨으로써 고려의학연구사업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그리고는 다신 나타나질 않소려. 은혜값음이라도 해야겠는데...》 시슴은 한명회의 이 소리에 입이 더욱 쓰겨워났다. 낮간지럼게도 이런 속내에 없는 말을 곧잘 할 줄 아는 위인임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자 시슴의 머릿속에 굴리는 글귀는 더욱 날카로와졌다. 《내가 드문이 풍자객이 됨은 바로 이런 때를 당함에 있을터이니...》 시슴은 또다시 한명회를 야료하기 시작했다. 《아마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것이오이다. 정말로 당대의 인물을 알아보는 란복할만 한 사람이오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소.》 시슴은 자기가 무지한 탓에 속히온것도 모르고 깊이 감복된다는듯이 입술을 늘려내는 한명회의 꼴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슴은 더 말을 앓고 그에게 필목을 내오도록 하였다.